**마1726 Note**

**◇한 마디- 자녀와 종**

한 집에는 집주인과 그 자녀들과 종들과 집밖에는 남들이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식구인 자녀들에게는 같이 먹고 같이 자며 집주인의 자산은 곧 자녀들의 자산

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종들에게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규정을 만들어 주어 그것을 지키게 하여 벌과 상으로 다스립니다.

자녀와 종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지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녀들로 삼으셨으며, 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해야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됩니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계약을 맺어 종으로 채용되며, 종에 관한 규정과 법으로 다스려지

게 됩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자녀가 되려면 혼인을 거쳐 한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피붙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양자됨의 피붙임, 접붙임의 의식을 통해 그 집 식구가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무로 말하면 수액을 공급받기 위한 접붙임이며,

사람으로 말하면 혈액을 공급받기 위한 주사기와 호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통로와 도구입니다.

자녀는 법이나 계약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그 집의 혈액과 전통과 생활방식등을 전수받아 한 식구가 됨으로,

동화됨으로 자녀로 됩니다.

일단 자녀가 되면, 자녀에게는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며,

자녀인 이상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처음부터 법으로 다스립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여러가지가 면제와 혜택이 주어집니다.